

■ 신학자 소개 ■ ④ 다음은 아벨라드가 소개됩니다

안셀름의 생애와 사상

■ 정 진 경 ■

<서울신학대학 교무과장>

안셀름은 중세기의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며 놀만디의 수도원장을 거쳐 영국 칸타베리 대승정이 되었다. 그의 성격은 온유 겸손하면서도 정의감이 강하여 한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는 두번이나 영국왕과 충돌한 일도 있었다. 그의 강직한 성격은 마침내 국왕으로 하여금 독립을 승인하고 감독선거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고야 말았다. 안셀름은 신학사상에 있어서 정통파 스콜라학파의 권위자이며 제 2의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우선 신앙과 지식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으며 스콜라 철학의 변증법적 논리를 이룩하였다. 그는 종교적 신앙은 지식 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식까지 아울러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면 단순한 신앙보다 더욱 훌륭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셀름의 신탁은 플라톤의 실체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전한 자를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관념,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다.

그의 신학적인 공헌은 그의 획기적인 저작 Cur Deus Homo?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었느냐?”에서 일관된 속죄의 교리를 제시함으로써 신학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십자가의 희생)을 악마와의 흥정으로 보는 통속적인 속죄론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하나님은 악마에게 빚진 일이 없다. 반대로 악마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채를 진 것이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다. 고로 특생자 그리스도를 악마의 손에 부칠 필요는 없다. 인간 편에서 볼 때에도 인생은 악마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채를 진 것이고 악마에게는 아무런 부채도 있을 수 없다. 손해를 입은 것은 인간자신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범죄로 인하여 그 권위와 영광에 손해를 입었고 그 권리에 침해를 입었다. 고로 인생의 범죄에 대한 채권자는 하나님이요 악마가 아니다. 고로 인간의 부채에 대한 보상의무는 하나님께 대해서다.

그러면 안셀름의 속죄론의 내용은 무엇

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선의 의무는 복종이다. 가장 악한 태도는 불순종이다. 인간은 복종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다. 이런 불순종의 죄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빛을 진 것이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쉽사리 용서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질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형벌이 가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배상이 요구되든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정죄가 되는 형벌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배상의 길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쇠잔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배상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드릴 능력이 없었다. 인간이 참회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배상에는 미달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새로운 복종으로도 과거의 죄과를 속죄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화육(化肉)이 필요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배상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의무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무죄한 그의 자발적 희생의 죽음을 보상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그런 보상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미 그의 것이며 그는 무죄하므로 면제 받을 아무런 빛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 즉 사역의 결과를 빚지고 허덕이는 인류에게 돌리신 것이다.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 말한 것이 안셀름의 신학에 있어서 중심되는 속죄론이다.

안셀름의 속죄론의 장점은 교부들의 유치한 속죄론을 극복하고 배상이 악마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죄로 인하여 침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함이 속죄론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것은 안셀름의 위대한 공적이다. 그러나 그의 속죄사상은 스콜라 신학의 냄새가 강하고 지나치게 합리적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안셀름은 배상이나 형벌이나의 양자중 죄를 그대로 두고 형벌없는 배상을 주장한 것은 너무도 중세기적이다. 여러가지 불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의 속죄론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속죄론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여러분들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신앙간증, 나의제언, 수필, 문학작품, 목회단상등 자유로운 투고를 기다립니다. 신앙인들의 대화의 광장이 기관지를 통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과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